

문화백신 콘서트 'Jazz In Symphony' "우산에 가족과 행복했던 순간 담아요"

사단법인 더문화, 문화공간 이룸서 6월 5일 진행... 조윤성·황호규·신동진 출연

사단법인 더문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콘서트 관람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서 문화백신 'Jazz In Symphony'를 오는 6월 5일 오후 5시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더문화와 문화공간 이룸에서 공동 주관하는 이번 문화백신 콘서트는 조윤성, 황호규, 신동진이 출연한다.

2020년 8월 설립된 사단법인 더문화는 도내 지역민과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기획과 참여로 지역의 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창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문화백신 'Jazz In Symphony'는 조윤성(재즈피아니스트), 황호규(베이스리스트), 신동진(드럼)으로 구성된 트리오가 출연한다.

아시아인으로 최초 '마르시알 솔라' 재즈 콩쿠르에 입상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윤성은 작년 10월 문화공간 이룸에서 재즈 토크 콘서트에서 공연한 바가 있어 8개월 만의 재초청한 아티스트이다.

황호규 퀘벡 리더이자 조수미, 김동률, 이소라, 윤종신, 투시드플 등 많은 가요앨범에 참여한 베이스리스트 황호규, EBS Space 공감,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많은 방송에도 참여한 우리나라 재즈계의 톱클래스인 신동진으로 이루어



사단법인 더문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콘서트 관람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서 문화백신 'Jazz In Symphony'를 오는 6월 5일 오후 5시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개최한다.

진 조윤성 트리오가 준비한 이번 콘서트는 세 악기의 조합으로 편곡 된 곡으로 특색있는 음악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프로그램으로는 Mozart의 'Symphony'를 비롯해 Beethoven의 'Symphony', Mahler의 'Symphony', Bach의 'Scioliane', Sibelius의 'Vals Triste', Wagner의 'Tristan Isolde' 등 음악 6곡을 선사해 드릴 예정이다.

이번 기획 콘서트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무게감 있는 연주자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재즈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쉽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관람객들에게 매혹적인 라이브 연주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람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사전 신청 예약제로 운영된다. 콘서트 예약은 5월 9일부터 온라인 예약 관람자에 한해(신청순 60명) 공연장에 착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문화공간 이룸으로 하면 된다.

또한, 공연 관람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띄어 앉기, 공연장 소독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윤정 더문화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전주 시민과 문화 소외계층에게 우리의 희노애락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동시에 치유의 역할을 해주는 음악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치유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재훈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맞아 29일 '나만의 우산 만들기' 진행

전주역사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9일 '나만의 우산 만들기'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족과 행복했던 순간'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넣은 우산을 만든 뒤 나만의 우산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전주역사박물관 내 하늘마당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오전 시에는 전주역사박물관 로비에서 실시된다.

참여 신청은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jonjumuseum.org)에서 가능하며, 행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063-228-6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역사박물관 관계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1m 이상 거리두기, 박물관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예술인 위한 권익보호 교육' 온라인 진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하는 올 상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만화·문학·시각미술·공연·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이다.

교육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교육 전달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뉴시스

한국문학세상, 제41회 신인상 6월 30일까지 접수

한국문학세상은 참신한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제41회 신인상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응모 부문은 시·시조·동시 5편 이내, 수필 2편 이내, 단편소설 1편, 동화 1편 등이다.

응모 희망자는 한국문학세상 홈페이지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종이 없는 심사를 위해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어느 심사위원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심사하는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비밀번호에 의한

온라인 심사로 진행된다.

1차 예선을 통과할 경우 2차 등단지도 과정으로 추천하고 그 과정에 합격하면 3차 본선에 추천해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당선자는 글쓰기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저서 소량 출간을 지원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7월 30일 발표하며 당선작은 종합문예지 '계간 한국문학세상' 11월 가을 겨울호에 게재된다.

/뉴시스

도민이 직접 문화·예술·관광분야 정책 발굴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내달 4~10일 JB 도민 지역문화정책 발굴단 모집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6월 4일부터 10일까지 'JB 도민 지역문화정책 발굴단(이하 발굴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이 직접 문화·예술·관광분야 정책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안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선정된 발굴단은 전문가 컨설팅과 5회 이상 원탁회의를 거쳐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해 관계기관에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6개 지역 도민이다. 5~6명 규모의 발굴단을 직접 구성해 관심주제를 설정하고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에 따라 이메일(idofk@jct.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내 지역문화재단 소재지역과 기존 사업에



참여한 시군은 2021년 사업에서 제외됐다. 구혜경 정책연구팀장은 "지역에서 고민해 온 각종 이슈를 도민이 직접 관계기관에 제

안함으로써 현장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 쌍방향 소통구조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